

화려한 불꽃으로 미술사를 밝힌 ‘위대한 미술가의 얼굴’

예술가란 누구인가. 걸작이란 무엇일까. 한 점의 예술작품은 왜 그토록 우리를 사로잡을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두고두고 높은 가치를 띠는가.

‘위대한 미술가의 얼굴’은 이런 궁금증을 풀어 주려고 전문가들이 노력을 집약한 미술전집이다. 엄선된 원작, 최근에 발굴된 사진 및 기록들,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 창작과 수용의 비밀들, 고답적 해석에서 벗어나

동시대상의 역동적 전개과정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는 텍스트들,

예술작품의 중개술로서의 사진의 가능성을 한껏 파헤친 이미지들,

이 모두가 편집자들과 번역자들의 세심하고 전문적인 손길로

완벽하게 되살아난다. 미술 전문 출판사로 세계에서 이름난

프랑스의 에디시옹 드 쉐느(Edition de Chene)와 열화당,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일본 등 8개국에서 동시 발간된 이 전집의 목표는

전문 역량을 모아 대중들이 미술을 참답게 이해하도록 한다는 데 있다.

‘위대한 미술가의 얼굴’은 대중매체의 혼돈 속에서 단편적이고 피상적이며,

스캔들 위주로 예술을 다뤘던 관례에서 벗어나 예술세계를

본래의 맥락으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출판이 문화의

진정한 전달자임을 확인시켜 준다.

각권 B4 변형 / 양장 / 올컬러 / 4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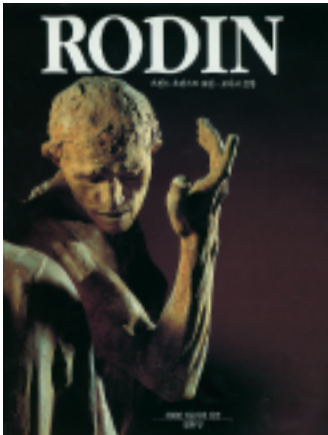
열화당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303호 전화 515-3141□3, 팩시밀리 515-3144
http://www.youlhwadang.co.kr e-mail:yhdp@youlhwadang.co.kr

오귀스트 로댕

모니크 로랑 / 정진국 · 이은진

로댕은 조각의 인상주의를 창시했고 ‘근대 리얼리즘 조각의 대표자’라 일컬어진다. 그는 중세 고딕 조각가를 따라 조각과 건축을 조합하려 했고, 그의 작품은 촉각적 기법을 구사하여 회로애락의 감정과 인간의 내면에 깃들인 생명의 약동을 표현했다. 로댕 자신의 말들과 서신들, 그리고 내밀한 고백, 다방면에 걸친 그의 작품들, 엄선된 희귀자료들이 어우러져 있는 이 책은, 어느 박물관보다 더한 감동과 인식 그리고 즐거움을 주어 미술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준다.



구스타프 클림트

게르베르트 프로들 / 정진국 · 이은진

20세기로 들어서는 전환기의 빈은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의 분열과 함께 회화 · 음악 · 문학 · 건축 분야에서 유례 없는 창조적 열기로 들끓었는데, 클림트는 그 중 가장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분리파에서의 활동, 대학 건물을 위한 그의 상징주의적 회화 등이 일으킨 스캔들은 유럽 중심부의 상류사회를 동요시켰고, 동시에 그는 현대미술을 지지하던 빈 상류사회의 화가가 되었다. 그 속에서 영감받은, 회화사 속에서 가장 관능적인 모습으로 남게 된 그의 초상화들과 이룸모를 모델들은, 이 책에서 다시금 생생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클로드 모네

소피 포르니-다게르 / 김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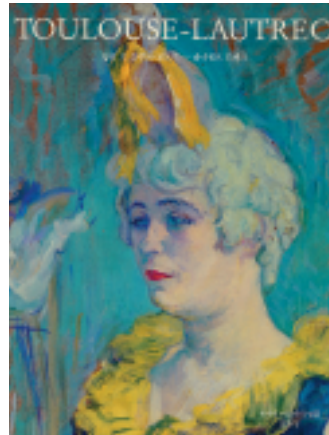
19세기 후반 인상주의가 태어나자, 살롱전은 이를 거부하고 비평은 소리높여 비난하며 대중은 야유하지만 모네는 계속해서 인상파로 남는다. 그는 연작들을 통해 흐르는 시간과 더불어 달라져 가는 빛의 효과들을 추적하고자 하는데, 그의 터치는 비물질적인 무지개빛 광채를 발하게 되며, 색채는 회화의 존재 이유가 된다. <수련> 연작에 오면 공기와 물과 빛은 한 덩어리를 이루게 되며, 더 이상 형태들이나 자연을 이루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순수회화를, 20세기 미술의 도래를 형성한다. 이 책은 이런 모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단숨에 얻게 해줄 것이다.



앙리 드 툴루즈-로트렉

다니엘 드뱅크 / 이은진

‘독자적이고 해학적이며 여유있고 자유로운 인간’, 이것이 화가 툴루즈-로트렉의 모습이었다. 타고난 가문과 부는 상층 부르주아지로의 문을 그에게 열어 주었으나, 그는 몽마르트의 가난한 사람들을 더 좋아했다. 꺾이지 않는 고집으로 그는 사창가에 자리를 잡아 창녀들을 그렸고, 카바레의 무용수, 가수 등을 그렸다. 이 책에는, ‘인물의 겉모습 아래 감춰진 본성을 표현하는’ 심리학적 천재성을 보여주는 로트렉의 작품세계와 그의 삶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오롯이 담겨 있다.



산드로 보티첼리

도미니크 티에보 / 장희숙

보티첼리의 예술은 날카로운 윤곽의 섬세한 묘사와 풍부한 영감, 색채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르네상스 미술이 새롭게 정복한 리듬감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는 일생 동안 고향인 피렌체에서 작업했고, 로렌초 대공의 보호를 받던 인문주의자 · 시인 · 철학자들에게서 그의 세속풍자화의 주제를 영감 받는다. 그리하여 <봄> <비너스의 탄생> 그리고 단테의 『신곡』 삽화 등 그의 대표적 세속화이자 걸작이 탄생한다. 이 책에서는, 보티첼리의 예술이 그 진수를 보여준 르네상스기 피렌체의 예술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있다.



조르주 피에르 쇠라

안느 디스텔 / 이은진 · 정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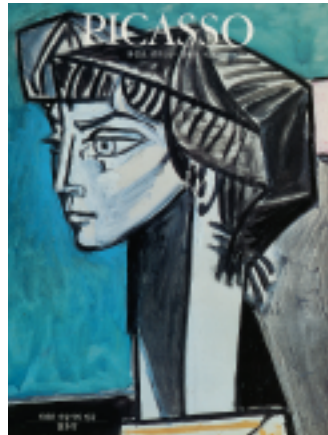
쇠라는 점묘법 또는 분할법이라 불리는 회화기법을 창안한 새로운 예술정신의 소유자이다. 서툰한 삶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등졌으며, 특정한 유파를 형성하지도 않았지만, 그가 구축한 예술세계는 하나의 형태로서 19세기와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쇠라의 작품은 아르누보뿐만 아니라 미래파, 분석 입체파 등에 영향을 주었으며, 신인상주의를 구현한 그의 예술사적 위치는 독보적이다. 이 책은 이러한 예술사적 맥락에서 쇠라의 삶과 작품을 정확성과 감수성으로 섬세하게 조명하고 있다.



파블로 피카소

피에르 텍스 / 정진국 · 엄인경

피카소가 1900년 파리에 도착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 시대 가장 뛰어난 미술의 천재가 프랑스의 현대 조형예술 분야에 혁명을 일으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피카소는 1904년에 몽마르트의 바토 라브와르에 정착하고, 1907년에는 큐비즘의 발판이 되는 <아비뇰의 아가씨들>을 제작한다. 또한 1936년 스페인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예전에 고야가 그랬던 것처럼 <게르니카>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한다. 이 책은, 피카소가 어떤 경우에도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가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에두아르 마네

프랑스와즈 카생 / 정진국 · 오지현

마네는 분명 그 시대에 있어 가장 큰 말쟁을 일으킨 화가였다. 살롱에 첫 출품한 1859년에 이미 낙선을 경험했고, 1863년 ‘낙선자 전시회’에서 영웅이 되기도 했던 그는, 살롱에서 ‘현대’ 예술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받아들여질 때까지 꾸준히 도전했다. 19세기 중반에 마네는 야외에서 반사광을 표현하는 새로운 회화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후에 마티스는 “그는 빛의 반사를 따라 그림을 그린 최초의 인물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화가의 작업을 쉽게 만든 최초의 인물이었다”라고 말한다.



위대한 미술가의 얼굴





프란시스코 고야

알폰소 E. 페레스 산체스 / 정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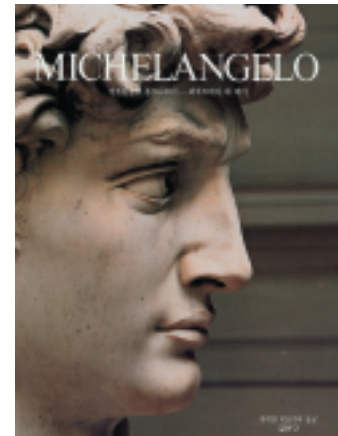
앙드레 말로가 이 '음산한 그림'의 화가로부터 '마침내 현대미술이 출발한다'고 썼듯이, 아마도 고야는 회화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정념에 찬 거인일지도 모른다. 궁정화가로서, 그리고 스페인의 가장 매혹적인 화가로서, 그는 몽매주의적 전통과의 어떤 타협도 거부하고, '전쟁의 참화'에 저항하고 발자요 증언자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격변하는 역사와 한몸이 된 그의 작품은 18세기를 마감하는 동시에 인상주의와 현대미술로의 길을 열어 놓는다. 이 책은 이러한 고야의 삶과 작품을 오롯이 조명해내고 있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피에르뤼지 데 베키 / 정진국 · 최윤정

열세 살 때 거장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화실에 들어가 여든아홉 살의 나이로 생애를 마칠 때까지,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삶을 온통 회화 · 조각 · 건축예술에 바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를 지음으로써 자신의 예술을 완성한다.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전기작가 바사리는 "미켈란젤로는 예술작업에 대한 열정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곤 했다"라고 씀으로써 그의 정열적인 예술혼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근래 복원된 시스티나 예배당 벽화의 전모를 사진 이미지로 담고 있는 이 책은, 미켈란젤로라는 천재를 다시금 발견하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



폴 세잔느

질 플라지 / 김용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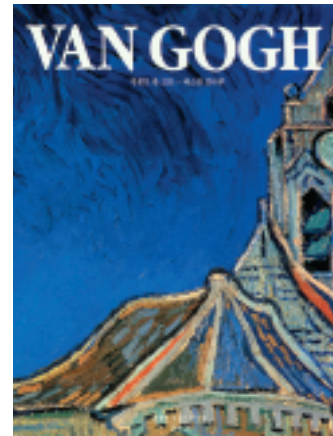
세잔느는 고향의 산을 그림으로써 전설적인 인물이 된다. 비평계를 피하려던 그는, 역설적으로 엑스 앙 프로방스에 파묻히면서 더욱 유명해진다. 수년간의 모색 끝에 개성적인 작품을 제작하게 되고, 그후 피카소 · 브라크 또는 칸딘스키 · 클레의 세대에 영감을 받고 세잔느를 현대미술의 창시자로 인정하게 된다. 이 책은, 죽을 때까지 대중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후세에 와서 그 진가가 드러난 전설 속의 영웅 세잔느의 삶과 작품세계를 소상히 밝히고 있다.



빈센트 반 고흐

파스칼 보나푸 / 정진국 · 장희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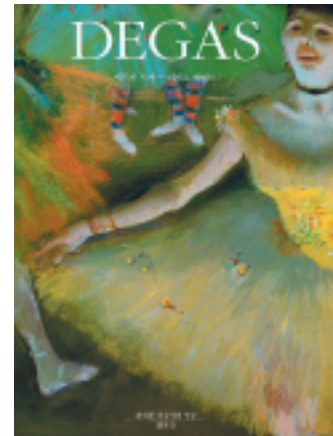
빈센트 반 고흐의 화가로서의 일생은 마치 번쩍이는 혜성과도 같이 현대미술사를 장식하고 있다. 1886년 파리에 도착한 그는 피사로 · 세잔느 · 시냐 · 툴루즈-로트렉 · 베르나르와 자주 만나면서 점묘법과 분할법 등 새로운 화법을 개척한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에게만 주어진 메시지, 즉 천재성이 있다고 믿고, 파리를 떠난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작품을 완성하고 사 년 후에 자살한다. 이 책에서는 반 고흐의 불 같은 일생을 'VINCENT'라고 서명된 그의 작품과 함께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에드가 드가

피에르 카반느 / 김화영

말년에 거의 장님이 되다시피 했던 드가는 19세기 미술사에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미래에 대한 걱정, 실명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 그리고 자기 계층의 여자들에 대한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그는 인상파 화가들 중에서도 가장 비밀에 싸인 사람이었다. 조각가 · 시인 · 사진작가인 드가는 동시에 당대의 가장 통찰력 있는 안목을 지닌 수집가들 중의 한 사람이기도 했는데, 이 책은 이렇듯 단순히 '무희들의 화가'만이 아니었던 이 예술가의 작품세계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귀중한 길잡이가 되어 준다.



피에르 오귀스트 르느와르

소피 모네레 / 정진국 · 문봉섭

르느와르의 걸작들은 색채의 바다로 물결친다. 도자기 화공, 교회당 장식가 등을 거치며 색채의 기초를 다진 그는 인상파의 대표 화가로, 담백한 색조와 강한 선을 구사했다. 그러나 그의 재능은 인상파에서 떠나 원숙한 빛으로 눈부신 독자적 색채와 감각 표현에 도달했을 때 유감없이 발휘되는데, 그 기법은 누드화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는 말년에 손이 오그라붙는 병세에도 더욱 많은 작품을 쏟아내었는데, 이 책은 이렇듯 치열한 예술가로서의 르느와르의 삶, 작품, 숨은 이야기들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렘브란트 반 레인

피에르 카반느 / 박인철

회화사에서 렘브란트만큼 심오하게, 그리고 그만큼 불안과 고뇌를 지니고, 인간과 세계, 화가와 신, 순간의 언어와 영원의 표현 사이의 관계를 파헤친 화가는 없다. 그는 비범한 투시력과 '명암에 대한 최고의 지성'을 지닌 빛과 어둠을 훑친 화가였다. 인생 자체가 사랑 · 금전 · 사회생활의 문제가 얹힌 갖가지 사건들의 연속이었던 그는, 영원히 살아 있는 인간미가 넘치는 작품을 후세에 남겼다. 이 책은, 가장 위대한 화가 중의 하나이며, 또한 그 고뇌에 찬 열정적인 인생이 우리들 각자의 인생과 흡사한 렘브란트의 작품과 인생을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

파스칼 보나푸 / 최민

'1632년 10월 델프트 출생, 그 달 31일에 세례 받음' '1675년 12월 13일 또는 14일에 사망, 16일 우드 케르크의 한 묘지에 매장됨'. 이 낱말들만이 베르메르의 생애에서 유일하게 확실한 이야기다. 나머지는 갖가지 의문 · 불확실, 그리고 추측들로 뒤덮여 있다. 즉 베르메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기류의 책들이 전하는 일화들과 상관없이, 그가 그린 것이 거의 틀림없다고 알려진 삼십여 점의 유화 모두를 직접 들여다보아야 한다. 이 책은, 당시의 시대상황과 여러 고문서, 그리고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이렇듯 베일에 싸인 화가 베르나르에게 한 걸음 다 가설 수 있게 해준다.

